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42
AUG 28 2020

발간년월 2020년 8월 28일 (통권 제142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삼성중공업, '즈베즈다-SHI'사(社) 지분 인수 검토
- 러 항만화물 처리능력, 2024년까지 3억 톤 이상 증가
- 연해주-한국-일본 연결하는 페리, 2021년 신규 취항
- 흑해에서 대규모 가스전 발견한 터키, 러시아와 협력
- 러, 2035년까지 에너지 개발 해상 플랫폼 40개 건설
- 러 관광청, 소형 크루즈 이용 북극 관광 활성화 추진

전문가 칼럼

- 러시아 물류시장 진출 유의 사항

주요 통계

- 2020년 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5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5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삼성중공업, ‘즈베즈다-SHI’사(社) 지분 인수 완료

■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SHI(삼성중공업)사(社)의 지분(49%)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함

-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삼성중공업”의 지분 49%를 인수하기 위해 연방 반독점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삼성중공업이 확보하기로 한 합작사 지분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임
- 통합 국가 법인 등록부에 의하면, 2019년 9월 6일 삼성중공업(49%)과 즈베즈다 조선소(51%)는 지분 투자를 통해 합작회사인 ‘즈베즈다-SHI’사(社)를 설립했음
- 2020년 2월 28일 삼성중공업이 ‘즈베즈다-SHI’사(社)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7월까지 러시아 측의 법적 절차가 지체되어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
- 8월 4일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SHI’사(社)의 지분 인수를 완료함
- 합작회사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 조선소에 선박에 대한 기본설계나 도면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관리, 수리 작업, 품질 보증, 장비 구입 등 전체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안은형,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dksdmsgud6@naver.com)

참고자료

-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moschnost_morskih_portov_rossii_do_2024_goda_uv_elichitsya_bolee_chem_na_300 mln_tonn.html(검색일: 2020년 8월 23일)
- <https://www.interfax.ru/business/720159>(검색일: 2020년 8월 23일)

러 항만 화물처리능력, 2024년까지 3억 톤 이상 증가

■ 러 정부는 최근 극동, 볼가-카스피해, 아조프-흑해, 북서 해역별 '2024 국가 개발 계획'을 수립했음

- 마라트 후스눌린(Marat Khusnullin) 러시아 부총리는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바니노항의 현 석탄 환적 터미널 신축 및 개발 사업에 대해 발표함
- 또한 부총리는 이 개발 사업을 통해 바니노 항만 물동량을 2024년까지 현재 물동량보다 4,500만 톤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음
- 부총리는 북서 해역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발트해 연안에서 가장 큰 항만인 우스트루가(Ust-Luga)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광물 비료, 석탄, 곡물 및 일반 화물의 환적을 위한 새로운 해상 터미널(화물처리능력 4,200만 톤)이 건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안은형,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dksdmsgud6@naver.com)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koreycy_vnov_reshili_prisoedinitnya_k_proektu_zvezdy.html(검색일: 2020년 8월 23일)

연해주·한국·일본 연결하는 페리, 2021년 신규 취항

■ (주)한창은 2021년까지 슬라반카~블라디보스토크~속초~홋카이도를 잇는 페리 노선을 신규로 취항할 계획임

- 이 사업은 여객 및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극동투자수출지원청 대표는 (주)한창과 연해주 여행사가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주)한창의 페리선은 연해주~한국 노선을 따라 약 450명의 여객과 200TEU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것임

- 블라디보스토크 무역항 및 슬라반카 항만과 (주)한창은 입항 조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음
- 극동투자수출지원청은 본 사업 추진 시 자유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주)한창이 극동개발공사의 입주기업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서류작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안은형,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dksdmsgud6@naver.com)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299781/>(검색일: 2020년 8월 23일)

흑해에서 대규모 가스전 발견한 터키, 러시아와 협력

■ 터키, 흑해 연안에서 3,200억 입방미터 규모의 가스전 발견^{a)}

- 8월 21일(현지시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흑해 연안에서 터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천연 가스를 발견했다”고 발표
- 에르도안 대통령은 천연자원 탐사에 나선 시추선 파티(Fatih)호가 3,200억 입방미터 규모의 가스전을 발견했으며, 2023년에는 천연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 터키 시추선 파티호는 7월말부터 터키 북쪽인 흑해 서쪽 연안에서 약 100해리 떨어진 튜나-1 지역에서 탐사 활동을 진행해 왔음
- 터키 정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탐사 및 시추를 진행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추선 3척을 구입했으며, 지중해 지역 탐사 과정에서 주변국들과 마찰을 일으켜 왔음
- 터키는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국가로 2019년, 약 45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소비했으며, 이 중 99%를 수입. 매년 약 \$120~130억을 에너지 수입에 사용해 왔음

그림. 터키의 시추선 파티(Fatih)호



자료: <https://www.dailysabah.com/energy/2018/10/31/drillship-fatih-kicks-off-operations-in-med-second-vessel-to-enter-fleet-soon>

■ 터키 재무장관, 러시아와 지속적인 가스 부문 협력 지속한다는 입장 발표^{b)c)}

- 8월 26일(현지시간) 베라트 알바라이크(Berat Albayrak) 터키 재무장관은 티비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와 이란은 가스 부문에서 수년간 협력해온 국가”라며, 향후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터키 재무장관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위로 에너지부 장관을 거쳐 2018년 7월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음. 알바라이크는 뉴욕 페이스대에서 MBA 석사를 취득했으며, 터키 에너지 관련 기업인 칼릭 홀딩스의 최고경영자 출신
- 이날 방송에서 알바라이크는 앞으로는 “가스 생산국으로서 러시아, 이란과 새로운 시기에 맞게 새로운 협력을 이어갈”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을 시사했음

그림. 터키가 새로 발견한 가스전 위치

Turkey discovers gas field in Black Sea



자료: <https://www.middleeasteye.net/news/turkey-black-sea-gas-discovery-biggest-reserves>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k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 <https://www.middleeasteye.net/news/turkey-black-sea-gas-discovery-biggest-reserves>(2020년 8월 26일 검색)
- <https://www.urdupoint.com/en/business/ankara-counts-on-cooperation-with-russia-afte-1011424.html>(2020년 8월 26일 검색)
- <https://sputniknews.com/middleeast/202008251080276457-ankara-counts-on-cooperation-with-russia-after-large-gas-find-in-black-sea/>(2020년 8월 26일 검색)

러, 2035년까지 에너지개발 해상 플랫폼 40개 건설

■ 러시아는 북극 및 극동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해상에 2035년까지 40여개의 해상 플랫폼을 건설할 예정임

-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2035년까지 40여개의 해상 플랫폼의 건설할 계획임
- 이 계획에는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사, 로스네프트(Rosneft)사, 루코일(Lukoil)사 등 석유 가스기업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고 있음. 카스피해에서 석유 매장지를 개발하고 있는 루코일사는 15개의 해상 플랫폼을 발주함
- 해상플랫폼 설계에는 플랫폼 장비 개발의 독보적인 전문기업인 세바스토폴(Sevastopol)의 코랄(Coral)사가 참여할 것임
- 또한, 크릴로프 센터(Krylov Center)는 탄화수소 수출을 위한 해상운송 타당성 조사 및 기술 개발 관련 연구에 참여할 예정임

그림. 러시아 해상 플랫폼



Рис. 1. а) Стационарная нефтедобывающая платформа.
б) Плавающая нефтедобывающая платформа.

자료: http://zvt.abok.ru/articles/610/Primenenie_VIE_na_morskih_neftedobivayuchshih_platformah

■ 북극 및 극동지역의 해상 플랫폼 발주 계획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주 계획이 미뤄질 수 있음

-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는 오비만 카메노myskoye(Kamennomysskoye) 가스층 개발을 위한 고정식 해양 플랫폼을 발주할 예정임. 플랫폼 작업은 러시아 북서부 도시인 세베로드빈스크(Severodvinsk)에서 진행될 것임
- 하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북극 및 극동 지역의 작업 일정은 미정임. 알렉산드르 체모다노프(Alexander Chemodanov) 크릴로프 센터 조선소 통합시스템 관리부국장은 포트뉴스(Portnews) 인터뷰를 통해 현재 즈베즈다(Zvezda) 조선소 프로젝트 작업과 관련해 로스네프트를 비롯한 어떠한 주문도 없었다고 밝힘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65)

참고자료

- a) <https://portnews.ru/news/299854/>(검색일: 2020년 8월 26일)
- b) http://zvt.abok.ru/articles/610/Primenenie_VIE_na_morskih_neftedobivayuchshih_platformah
(검색일: 2020년 8월 26일)

러 관광청, 소형 크루즈 이용 북극관광 활성화 추진

■ 러시아 연방 관광청(Rostourism, Federal Agency for Tourism)은 '위대한 북극 보트 경주(Great Arctic Regatta)' 프로젝트 수행의 결과로, 소형 크루즈를 통해 러시아 북극 관광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타스(TASS) 러시아 통신사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러시아 연방 관광청,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 개발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러시아 북극 관광 개발 방안에 관해 논의함
- 러시아 연방 관광청의 자리나 도구조바(Zarina Doguzova) 국장은 해상 휴양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유형 중 하나이며, 러시아에서는 풍부한 해상 휴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트 관광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극의 크루즈 관광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장은 소형 크루즈를 통한 북극 여행이 대중적인 관광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위대한 북극 보트 경주(Great Arctic Regatta) 프로젝트는 보트 경주뿐만 아니라, 연구와 탐험, 문화 및 비즈니스 이벤트, 여행을 결합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임

- 프로젝트 참가자는 45일간 러시아 북극 지역 5개 연방주체를 통과했으며, 요트 “마리아”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슐리셀부르크(Shlisselburg)-로디노예폴(Lodeynoye Pole)-핀두시(Pindushi)-벨로모르스크(Belomorsk)-아르크한겔스크(Arkhangelsk)-무르만스크(Murmansk)-테리버카(Teriberka)-솔롭키(Solovki)-벨로모카날(Belomorkanal)-보즈네세니(Voznesenie)-로디노예폴-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어지는 항로를 항해했음
-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극 지역의 대중화를 목표로 북해항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러시아 북극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상되었음
- 프로젝트 참가자는 해당 노선의 인프라 현황을 평가하고, 관광 명소, 기업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비용과 인프라 개선에 관한 실무회의 등을 수행했음

■ 러시아 북극의 해양 관광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 개발의 핵심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임

- 세르게이 코네예프(Sergey Korneev)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바

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청정한 북극 지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당국은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친환경 관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서부 지역이 해양관광의 중심지이자 출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 그는 또한 크루즈 관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작업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 항로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yunjink24@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www.interfax-russia.ru/northwest/main/vlasti-peterburga-namereny-razvivat-vodnyy-turizm-na-russkom-severe>(2020년 8월 24일 검색)
- b) <https://tass.ru/obschestvo/9252233>(2020년 8월 24일 검색)
- c) <http://sudostroenie.info/novosti/31033.html>(2020년 8월 24일 검색)



러시아 물류시장 진출 유의 사항

이승진 외국변호사(러시아)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안착을 위해서는 사업 모델에 대한 현지법 검토가 필수다. 러시아는 언어접근성이 낮은 비영어권 시장으로, 지역전문가의 개입 없이 기업 자력으로 현지의 법, 규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러시아 진출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현지법적 제한사항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 물류시장 진출에 있어 어떤 법적 진입장벽이 있는지 살펴본다.

내국민 대우 원칙

러시아 헌법은 국제협약이나 연방법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국민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하지만, 예외적 경우로서 헌법적, 윤리적 가치의 수호, 건강 및 권익의 보호, 국방 및 안보 상 긴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 제한

러시아에서 물류창고 운영을 계획한다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매입하고자 할 것이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주체에 의하여 자유롭게 처분·양도가 가능하지만, 토지와 천연자원의 거래는 규제대상으로서 토지 및 지하자원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토지법은 특정 연방정부소유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거래를 원천금지 하면서, 여타 국유지 및 지방자치 소유 하의 시설물이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는 거래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자국민, 외국인에게 공통된 규제이다.

거래금지 대상 토지(토지법 27조 4항)	거래제한 대상 토지(토지법 27조 5항)
연방정부 소유 하에 있는 자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군주둔지, 군사법원, 연방보안국, 보호국, 핵원자력 사용 및 보관 시설, 민간인출입통제시설, 교도소, 묘지, 국경보호를 위한 시설물이 소재한 토지	국가(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 소유 하에 있는 산림지, 해/수상시설, 문화유산, 군사시설,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인프라, 우주항공시설, 수력발전시설이 소재한 토지, 유해화학물질제조 용도의 토지, 위험폐기물 및 방사능 오염 토지, 행정적 필요로 보존 중인 국유지, 상수원보호구역

자국민에게는 허용하지만 외국인의 소유권을 금지한 토지로는 1) 러시아 국경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국경인접지와 2) 연방법에서 특정한 여타 특수지에 속한 토지가 있다. 일례로, 외국인은 항만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농경지에 대하여는 외국인 소유 금지가 아닌 지분을 제한이 있다. 외국인이나 이들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은 오직 임차를 통하여 농경지를 사용수익 하도록 규제한다. 이 지분을 규제 조항에 대하여 입법의 취지와 달리 사법부는 상반된 사법해석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지분 50%' 문구 자체가 세법상 넓은 의미의 직간접적 지배권(control)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좁은 의미의 직접적 소유권(ownership)을 의미한다고 설시하며, 지분을 제한을 준수하는 지배구조의 손자회사를 통한 농경지 소유권 취득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외국인투자자의 농경지 소유가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적법성에 관하여는 법률과 사법해석 간 괴리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면허대상 규제업종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특정산업 진입 시 법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면허(license)를 발급받도록 규제하는 업종은 52개로, 이중 물류 산업에 속한 것은 1) 항만, 수상, 철도에서의 하역업, 2) 해수운송설비 및 철도를 이용한 여객, 위험화물 수송업, 3) 버스여객수송업, 4) 선박 예인업이 있다. 면허발급 대상이 아닌 업종은 법인등기부 상 사업목적 기재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다.

전략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안보가 우선인 특정산업 분야에 있어 러시아는 '국방 및 안보에 있어 전략적 의미를 가진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전략산업외투제한법")'에 따라 핵/원자력, 항공우주, 지하자원, 방산, 언론, 통신, 보안, 어업, 자연독점적 서비스 등 총 47개 분야에서 외국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화물의 적재와 하역, 보관 등 항만에서의 서비스업은 자연독점적 서비스로서, 외국인투자자가 제한된 산업이었으나, 러시아는 2014년 자국 항만의 현대화를 위한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전략산업외투제한법 상 자연독점적 서비스 범주에서 항만서비스업을 제외하며, 시장지배적 항만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건에 한하여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항만서비스사업자 판단은 항만구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으로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인식하는 경우다.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의 반대급부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회사("전략산업체")의 소유권(ownership)이나 일정 지배권(control)을 취득할 경우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전략투자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

	외국인 민간투자자	해외국, 국제기구, 역외지역 설립회사, 실소유자 공개를 거부한 외국인 민간투자자
전략산업체	의결권 50% 이상 직간접적 처분권 대 표이사 선임권 이사회 임원 50% 이상 선임권	의결권 25% 이상 직간접적 처분권 의결기구에서의 의결거부권 (right of negative control)
연방 차원의 지하자원 사용권이 있는 전략산업체	의결권 25% 이상 직간접적 처분권 대 표이사 선임권 이사회 임원 25% 이상 선임권	의결권 5% 이상 직간접적 처분권 의결기구에서의 의결거부권 (right of negative control)

전략산업체의 사업계획을 확정할 권리가 있거나, 전략산업체를 위탁경영 하거나, 전략산업체의 장부가액 기준 25% 이상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전략투자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위 표에 나열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러시아 안보와 국방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러시아 총리는 본인의 재량으로 전략투자승인 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 건에 대하여도 전략투자승인 신청의무의 발생을 강제할 수 있다.

전략투자승인을 받지 못한 거래는 원천무효이며, 이는 거래의 당사자들이 거래 전 상황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거래 전 상황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연방 반독점청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의 효과로 취득한 의결권의 박탈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전략산업체의 통제권 취득 이후 전략산업체 명의로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2월 연방 반독점청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전략산업외투제한법 도입 후 지난 12년 간 총 621 건의 전략투자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의 반려 및 취소 건을 제외한 282건을 심사하였다. 이 가운데 23건에 대해서는 국방 및 안보를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다.



주요 통계



표. 2020년 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3.48 (+3.6%)	7.13 (+4.9%)	20.61	+4.1%
북극해	2.63 (-3.4%)	5.13(-6.4%)	7.76	-5.5%
발트해	9.68(-2.4%)	13.39(+6.2%)	23.6	+2.6%
아조프-흑해	7.92(+15.1%)	11.36 (+1.8%)	19.28	+6.6%
카스피해	0.25 (+41.7%)	0.29 (+3.0%)	0.54	+17.3%
합계	33.96(+4.2%)	37.3(+2.5%)	71.26	+3.2%

* 주: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초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297118/>(검색일: 2020년 8월 10일)

b)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gruzooborot_morskih_portov_rossii_za_yanvar-aprel_vyros_na_3_7_do_280_13 mln_tonn.html(검색일: 2020년 8월 10일)

표. 2020년 5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270,286.90	65,970.90	977.20	887.00	271,264.00	66,857.90
광물 제품	1,171,075.50	21,265.40	23,702.10	55,389.00	1,194,777.60	76,654.50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098,071.80	19,753.80	100.9	-	1,098,172.70	19,753.80
생고무 및 화학 제품	3,067.20	49,619.60	481.40	543.50	3,548.70	50,163.10
가죽원료, 모피 제품	734.1	941.30	0.6	85.1	734.6	1,026.30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85,237.30	8,688.90	318.60	171.4	85,555.90	8,860.40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1,943.20	52,017.80	8.4	437.30	1,951.60	52,455.10
금속 및 금속 제품	28,404.50	57,749.70	93.5	654.00	28,498.00	58,403.70
기계류	6,482.10	286,525.50	519.40	10,415.20	7,001.50	296,940.70
기타	51,537.70	32,613.60	80,675.30	134.7	132,213.10	32,748.20
합계	2,716,840.30	595,146.50	106,877.40	68,717.20	2,823,717.70	663,863.70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검색일: 2020년 8월 10일)

표. 2020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동어	91,326	121,383.9	3,324	5,769.9	128	113.14	-	-	91,455	121,497	3,324	5,769.9
연어류	7,134	13,808.5	-	-	-	-	-	-	7,134	12,808.5	-	-
넙치	473	2,528.4	-	-	-	-	-	-	473	2,528.4	-	-
가자미	842	666	-	-	-	-	-	-	842	666	-	-
가자미류	1,976	1,700	-	-	-	-	-	-	1,976	1,700	-	-
청어	18,798	11,576.5	-	-	108	87.1	-	-	18,906	11,663.6	-	-
대구	4,818	13,556.5	-	-	-	-	-	-	4,818	13,556.5	-	-
명태	45,766	46,590.1	-	-	80	26.1	-	-	45,786	46,616	-	-
농어	39	109.6	-	-	-	-	-	-	39	109.6	-	-
간, 곤이 (어란)	5,762	23,030.4	-	-	-	-	-	-	5,762	23,030.4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99	1,319.7	-	-	-	-	-	-	699	1,319.7	-	-
생선 필렛, 어육	7,176	20,905.9	91	341.9	-	-	-	-	7,207	20,974.7	91	341.9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2	33	154	930.9	-	-	-	-	12	32.9	154	930.9
갑각류	6,824	97,969.2	16	126.2	-	-	-	-	6,824	97,969.2	16	126.2

계류	5,900	91,388.3	-	-	-	-	-	-	5,900	91,388.3	-	-
조개류	1,250	2,719	-	-	-	-	-	-	1,250	2,719	-	-
가리비	626	1,104.3	-	-	-	-	-	-	626	1,104.3	-	-
오징어류, 문어류	550	1,461.8	75	355.1	-	-	-	-	550	1,461.8	75	355.1
수산 무척추 동물	780	2,339.9	-	-	-	-	-	-	780	2,339.9	-	-
해삼류	65	136.4	-	-	-	-	-	-	65	136.9	-	-
성게류	714	2,202.9	-	-	-	-	-	-	714	2,202.9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검색일: 2020년 8월 10일)